

광주도시공사, 부상 악재에 연승 실패

후반 김금순 부상에 전력 공백
서울시청에 23-30 패배
18일 부산시설공단과 경기



광주도시공사 핸드볼팀이 연승에 실패했다. 광주도시공사는 14일 오후 2시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청과의 대결에서 23-30으로 패했다. 지난 12일 대구시청과의 경기에서 30-25로 첫 승을 거뒀던 광주도시공사는 이날 경기에서 김금순의 부상으로 흔들리면서 연승을 잇지 못했다.

이날 패배로 H리그 전적은 1승 1무 2패가 됐다. 광주도시공사는 이날 수비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후반전 김금순의 부상 악재가 발생했다. 경기 중반까지 한 점 차 승부가 계속되며 접전이 펼쳐졌다. 전반 21분 서울시청 조은빈의 득점으로 광주도시공사가 9-10 한 점 뒤처졌지만, 율해 일본에서 영입한 시미즈 아이카가 빠른 발놀림으로 상대의 빈틈을 노린 슈팅을 선보이며 다시 동점을 만들었다. 전반 22분 서울시청 우빛나가 리드를 가져가는 골을 기록했지만, 김금정의 패스를 받은 서아루가 미들 슈팅에 성공했다. 골이 아이카가 페인팅 모션을 선보인 후 득점하며 12-11이 됐다.

전반 25분 서울시청 우빛나의 득점이 터졌다. 전반 26분 서울시청 조아람의 슈팅을 골키퍼 박조은이 한차례 막아냈지만 리바운드 된 공을 잡은 서울시청 윤예진이 득점으로 연결하면서 12-13이 됐다.

이어 전반 27분 아이카가 오른쪽 틈새를 공략해 13-13.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광주도시공사 오세일 감독은 한 차례 작전타임을 요청했다.

우빛나가 전반 28분 9m 득점으로 서울시청이 한 점 앞섰다. 김서진이 전반 29분 30초 속공으로 14-14를 만들었지만, 바로 서울시청 송지영의 골이 터지며 전반전은 14-15로 마무리됐다.

전반전 슈팅 성공률은 광주도시공사가 60.9%, 서울시청이 55.6%를 기록했다.

후반전에선 김금정의 부상이 아쉬웠다. 오세일 감독은 엠틀골로 더블 피봇 작전을 쓰며



광주도시공사 김서진이 14일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열린 경기에서 슈팅하고 있다. <한국핸드볼연맹 제공>

후반전을 시작했다. 서울시청 윤혜진이 골을 시도했지만 박조은이 빠른 스피드로 골대를 막았다.

후반 1분 김금순이 서울시청 조은빈을 확인하지 못하고 부딪쳐 코트에 왼쪽으로 세계 떨어졌다. 부상상으로 김금순이 잠시 경기장을 벗어나면서 광주도시공사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후반 9분 서울시청 권한나가 19-19 동점을 만들어냈고 이후 두 차례 골을 더하면서 서울시청이 달아나기 시작했다. 후반 25분 나온 서울시청 오예나의 득점으로 점수는 7점 차 (22-29)까지 벌어졌다.

부상으로 빠졌던 김금순이 다시 투입돼 후반 21분 슈팅을 날렸지만 골로 이어지지 못했고, 후반 22분 맞은 골키퍼와 1대1찬스에서 날린 슈팅은 골

대를 맞고 나갔다. 후반 27분 김지현의 골로 광주도시공사가 23점까지 따라갔지만 후반 28분 서울시청 우빛나가 9m 득점에 성공하며 23-30으로 경기가 마무리 됐다.

광주도시공사 김지현과 서아루가 7골씩을 넣었고, 골키퍼 박조은은 16세이브를 기록했다. 서울시청 골키퍼 정진희도 16개의 세이브를 남겼다. 7골을 기록한 서울시청 우빛나가 이날 MVP로 선정됐으며, 서울시청 권한나는 이날 경기로 개인 통산 1300득점을 달성한 첫 선수가 됐다.

한편, 광주도시공사는 18일 오후 8시 부산기장체육관에서 부산시설공단과 경기를 펼친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14일 고양 소노 아레나에서 열린 2023-2024 정관장 프로농구 올스타전에서 공이지팀 자일 위니(SK)가 덩크슛하고 있다.

공이지팀, 프로농구 올스타전서 크블몽팀 제압

‘51점 폭발’ 위니 MVP 선정

프로농구 ‘별들의 축제’ 올스타전에서 자일 위니(SK) 등을 앞세운 ‘공이지팀’이 허웅(KCC)을 필두로 한 ‘크블몽팀’을 물리쳤다.

조상현 창원 LG 감독이 지휘한 공이지팀은 14일 경기도 고양 소노아레나에서 열린 2023-2024 정관장 프로농구 올스타전에서 연장전 끝에 김주성 원주 DB 감독이 이끈 크블몽팀을 135-128로 꺾었다.

5581명이 들어간 가운데 열린 이날 올스타전은 KBL 캐리커 ‘KBL 프렌즈’의 이름을 딴 ‘크블몽팀’과 ‘공이지팀’으로 나뉘 펼쳐졌다.

크블몽팀에선 올스타 투표 3년 연속 1위에 빛나는 허웅(16만6616표)을 비롯해 디드릭 로슨(DB), 이정현, 전성현(이상 소노), 하윤기(kt)가 선발로 나섰고, 공이지팀에선 위니, 최준용, 양홍석(LG), 김종규(DB), 이정현(삼성)이 선발로 출격했다.

공이지팀은 상금 300만원을, 패한 크블몽팀은 100만원을 받았다.

최우수선수는 이날 무려 51점을 몰아넣고 리바운드 14개, 어시스트 8개를 곁들여 공이지팀을 승리로 이끈 위니가 차지했다. 위니는 MVP 상금 500만원을 거머쥐었다.

1쿼터 크블몽팀 하윤기가 덩크 두 방으로 지난 해 MVP다운 면모를 보였으나 위니가 11점 3리

바운드 3어시스트를 기록한 공이지팀이 26-22로 기선을 제압했다.

2쿼터엔 공이지팀의 ‘외곽포 파티’가 펼쳐졌지만 크블몽팀도 허웅, 이정현, 로슨의 외곽포 등으로 응수하며 52-62로 전반을 마무리했다.

4쿼터 중반 로슨의 신들린 듯한 외곽포로 6분 48초를 남기고 98-98 동점을 만든 크블몽팀은 6분 18초 전 이번 올스타전 유일한 신인 선수인 유기상의 3점 슈트로 101-98 역전에 성공했다.

이후 접전이 이어진 가운데 위니의 원맨쇼 속에 14.6초를 남기고 공이지팀이 118-115로 앞섰으나 7.3초 전 이관희가 3점슛 동작에서 파울을 얻어내 자유투 3개를 다 넣고 균형을 맞추며 연장전이 성사됐다.

프로농구 올스타전의 연장전은 2001-2002시즌 이후 무려 22년 만이자 1997-1998시즌을 포함해 역대 세 번째다.

연장전에서는 위니가 결정적인 ‘3점포 폭죽’을 터뜨려 공이지팀의 승리와 MVP를 그대로 예약했다. 공이지팀의 최준용은 19점 14어시스트 13 리바운드로 프로농구 올스타전 역대 ‘2호’ 트리플 더블의 주인공이 됐다.

3점슛 콘테스트에선 이근휘(KCC), 덩크 콘테스트에선 패리스 베스(kt)가 우승을 차지해 각각 상금 200만원을 받았다. 덩크 콘테스트 퍼포먼스상(상금 100만원)은 LG의 저스틴 구랑에게 돌아갔다. /연합뉴스

김민선, 동계체전 팀 추월 ‘금’

500·1000m 이어 3관왕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대표팀 단거리 에이스 김민선(의정부시청)이 제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3관왕에 올랐다.

김민선은 13일 서울 태릉국체스케이팅장에서 열린 대회 여자 일반부 팀 추월 경기에서 김윤지(동두천시청), 구일레르민 살렛(경기일반)과 함께 경기선발로 출전해 3분27초26의 기록으로 서울선발(3분31초62)을 꺾고 우승했다.

그는 11일 여자 일반부 500m, 12일 여자 일반부 1000m에서 금메달을 땀과, 단체전에서도 금메달을 추가하며 깔끔하게 대회를 마쳤다.

국내 일정을 마친 김민선은 다음 주 미국으로 출국해 20일부터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리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 선수권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다.

같은 날 열린 남자 일반부 1500m 경기에선 엄천호(스포츠토토)가 1분49초65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한편 제105회 동계체전은 2월 중순부터 열리고, 스피드스케이팅은 국제대회 일정에 따라 11일부터 13일까지 사전 경기로 펼쳐졌다. /연합뉴스

유럽여자골프 “올해 주목할 신인은 홍정민”

LET, 기대되는 신인 10인 선정

홍정민이 2024년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LET)에서 주목해야 할 신인 중 한명으로 뽑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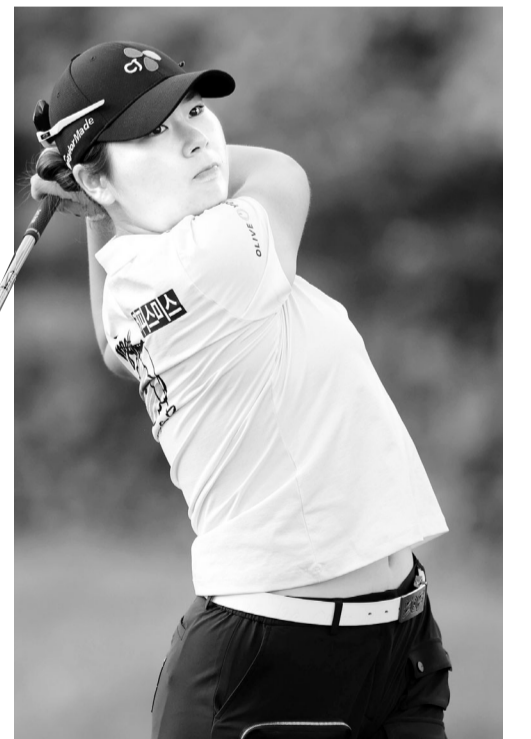
LET는 14일 홈페이지에 올해 주목해야 할 신인 10명 중 한명으로 홍정민을 소개했다.

LET는 2024년 투어 출전권을 주는 웰리파이 스쿨에서 홍정민이 예상대로 상위 20위 안에 들어 폴시드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홍정민은 작년 12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웰리파이 스쿨에도 도전했지만, 조건부 출전권 획득에 그쳤다.

이후 홍정민은 모로코에서 열린 LET 웰리파이 스쿨에서 공동 20위에 올라 출전권을 따냈다.

LET 2024시즌은 오는 2월 8일 매지컬 케냐 여자오픈을 시작으로 5개 대륙에서 31개 대회가 열린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교향악단 380회 정기연주회
2024 신년음악회 Festival
일시 : 2024-01-16(화) ~ 2024-01-17(수) 19:30
장소 : 전남대학교 민주마루
문의 : 062-613-8241

GAC 공모전 정승희 개인전
〈드라마보다 드라마틱한 순간〉
일시 : 2024-01-17(수) ~ 2024-02-18(일)
공연 있는날 10:30 ~ 19:30
공연 없는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